

혁신기업에 3년간 40조... 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소·부·장 등 주력 산업에 11조 30곳기업에 민간투자 유치 지원

정부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해 향후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주력산업에도 11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위험 투자상품이나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연두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올해 업무계획은 방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금융 등이다.



손병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큰 틀에서 보면 혁신금융을 전면에 내세운 기조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외쳤다면 올해는 혁신기업과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1000개 혁신기업을 뽑아 3년간 최대 4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투자와 대출이 각각 15조원씩이며, 보증

이 10조원 규모다. 벤처·유망산업·핀테크 등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 캐피탈(VC) 등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소·부·장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11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4조 5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특히 소·부·장 기업에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자기관,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오픈플랫폼도 구축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에 3조원, 환경안전에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시중의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흘러수 있도록 여신시스템은 정비한다. 회수지원기구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기업을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 제도도 개편한다.

정책서민금융에는 7조원을 공급한다.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규모 6조 7000억원을 웃돈다.

햇살론 17의 공급규모를 작년 4000억 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두 배 늘리며, 근로자햇살론과 미소금융·새희망 훌씨가 각각 2조 2000억원, 4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기반을 구축한다.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도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한, 업계 첫 비대면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그룹사 연금자산 원스톱 관리 금감원 통합연금포털과 연동

신한금융그룹은 17일 금융권 최초로 그룹사가 통합해 비대면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연금마당'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연금마당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 주요 그룹사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스마트연금마당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그룹사 개인형 퇴직연금(IPR) 계좌 신규 개설 ▲그룹사 간 교차 입금 ▲계좌별 수익률 알림설정 및 납입한도 변경 ▲보유자산 리밸런싱 등 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스마트연금마당을 활용하면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신한은행 쏠(SOL) 앱을 통해 개인의 연금자산을 관리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회사 퇴직연금사업자가 신한금융투자나 신한생명일 경우 각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했다.

스마트연금마당은 고객의 효율적인 연금플랜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연동해 타 금융기관의 연금자산 및 국민연금 납입 현황을 제공한다. 전체 연금수령 예상액을 가정해 연금개시 나이나 수령 기간 등 본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그룹사 연금저축을 납입 현황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액 공제 예상액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자는 "편의성 개선과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채용한파 속에도 저축銀 “인재 모집”

신입·경력 채용

채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의 신입·경력지원 채용이 시작돼 금융사 취업 준비생의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키움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등이 현재 신입, 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우선 웰컴저축은행은 대출심사과 자산관리 모집부분에서 정규직 신입, 경력사원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대출심사의 경우 고객상담과 안내, 비대면 콜업무가 가능하면 우대받을 수 있으며 금융권 대출심사 경력이 1년 이상이면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근무지는 구로 본사와 여의도, 부평이다.

자산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과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둔다. 해당 업무 또한 금융권 대출심사 1년의 경력이 있으면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산관리 업무는 서울 강남역과 을지로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서류전형을 거쳐 실무진 임원면접, 인적성검사, 채용검진



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생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813억원의 누적순이익을 올린 바 있으며 1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키움증권이 운영하는 키움저축은행도 인재 채용에 한창이다. 키움저축은행은 오는 23일까지 신입, 경력직원을 모집한다.

우선 신입부문에서는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나눠 모집한다.

경력부분에서는 기업, 개인금융부문과 사업전략부문의 경력자를 찾고 있다. 기업금융에서는 저축은행업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초대졸 이상자를 구한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PF대출 등 여신 영업을 담당할 경력자도 구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금융업권 여신영업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년제 대졸 이상 자리를 자격요건으로 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내 손에 펭수’ KB국민카드 체크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를 카드 디자인에 담은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펭수’ 특유의 인사법인 ‘펭하’ 포즈와 ‘펭수’의 다양한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카드 디자인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카드는 내년 2월 16일까지 상품을 한정 판매하며, 카드 디자인은 ‘펭-카’ 또는 ‘펭-모티콘’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만 명에게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 있는 어록을 활용한 스티커가 카드 실물과 동봉해 제공된다. 이 카드 고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



신요금 2500원 할인 등 노리체크 카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계자는 “이 상품이 펭수를 사랑하는 고객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가입시 보너스”

NH농협생명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보험’을 가입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과 NH포인트를 증정하는 ‘연초부터 준비하는 13월의 보너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NH온라인연금저축보험(무) 2002’ 또는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무) 1904’에 월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 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을 지급한다.

또 ‘NH 온라인암보험(갱, 무) 1904’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NH포인트(월보험료의 20%, 최대 1만포인트)를 지급한다. 월보험료 1만3000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김희주 기자 h189@

하나의 앱으로 홍콩으로 이체도 간편하게

하나은행은 글로벌 스마트폰뱅킹 앱 ‘글로벌원큐’의 홍콩지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콩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손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글로벌원큐는 별도의 국가 선택 과정 없이 해당국을 자동으로 인식해 로그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OTP 사용으로 기존 OTP의 배터리 방전·분실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최근 이제 내역 확인 후 금액만 수정해 간단하게 송금 할 수 있는 ‘간편송금’ 기능을 통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으며, 해외 출장이 짧은 기업 임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승인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업결재함’ 기능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하나의 앱으로 ▲계좌조회 ▲대출조회 ▲국내외 송금 등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홍민영 기자